

## 윤석열 대통령, '1호 영업사원 세일즈 외교', 24억 달러 자푸라 가스플랜트 수주 계약 쾌거

윤석열 대통령,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3, 월) 오후 리야드 네움 전시관에서 한-사우디 양국의 인프라 기업인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부제 '알울라-카이바에서 네움까지')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빈 하마드 알 호가일 사우디 도시주택총총부 장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Aramco)의 아민 나세르 대표, 나드미 알 나스르 네움 컴퍼니 대표 등 사우디 관계자

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기업의 대표와 네이버, KT 등 IT 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973년 삼한기업이 우리 기업 최초로 사우디에서 알울라-카이바 고속도로 사업(약 2천만 불)을 수주한 해로부터 50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면서, 네움시티 등 첨단 미래 도시와 디지털 인프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통령 임석 하에 스카

푸라 2 가스플랜트 패키지 사업(약 24억 불),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모듈러 사업 협력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MOU, △디지털 인프라 구축 MOU 등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자푸라 2(Jafura 2) 가스플랜트 패키지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사우디 아람코(Aramco)가 보유한 중동 최대 세일가스 매장지인 자푸라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 지속되어 온 양국 정상 간 신뢰의 성과로 지난 6월 아미랄 프로젝트(약 50억 불) 수주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이다.

또한 네이버와 사우디 도시주택총총부는 사우디 5개 도시에 현실 공간과 똑같은 가상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구축해 도시계획 및 관리, 홍수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 사업으로, 우리 건설의 해외 진출이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첫 출발이다.

대통령은 한-사우디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사우디 전역에 걸친 1,900여 건의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녹아 있다고 지난 협력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사우디가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기술변화 및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사우디가 추진 중인 네움시티 등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도시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이어진 행사에서 대통령은 나드미 알 나스르 네움 CEO의 안내를 받아 네움 전시관 내의 더 라인(The Line)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는 전시물을 관람하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최광수/기자

## 경기도 김동연, 정부 재생에너지정책 축소에 전문가들과 대응방안 모색

경기도, 19일 정부 에너지 정책 동향 보고 후 대응 방향 모색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축소 기류에 대해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에너지 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의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강금실 기후대사,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에너지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전의찬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롤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군은 지자체장의 역할이 큰 만큼 지자체장들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1조 490억 원에서 내년 6,054억 원으로 약 42%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PS)의 2026년 의무 공급 목표 비율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폐지했다.

특히 RE100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최근 정부가 제안해 주도하고 있는 CF100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은 CF100이 42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국제 표준으로 경제·통상의 조건이 되고 있는 RE100을 포기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경기

RE10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RE100 성과를 국내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 지원 예산 축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경기도 재정투자 확대, 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중요한데 기업들이 그런 애기를 혼자서 하기 힘들지만, 지자체와 경기도가 함께 정부에 얘기한다면 그런 요구를 정부에 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임재민 의원은 "경기도에서라도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표준조례를 만들고, 영농형 RE100 확대를 위해 특구를 지정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도민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대한민국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도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홍보와 컨설팅, 경기RE100 실천을 위한 도와 시군 협력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자리를 함께하며 의원들의 제안을 경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이 마치 RE100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하는데, 대책을 조금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예를 들어 재난에 대한 대응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소비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종합적인 그림을 같이 봤으면 한다. 이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 경북도, 2024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광역지자체 중 최다 선정!

경북도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에 복지시설나눔숲 5개소, 무장애나눔길 3개소, 무장애도시숲 17개소 등 총 9개소가 선정되어 기금 4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은 복권 수익금 재원을 이용해 사회·경제적 소외·배려 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생활공간 주변에 녹지환경을 조성(개선)하고 숲속 체험 기회를 확대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4년 공모 결과에 따르면 '복지시설나눔숲', '무장애나눔길', '무장애도시숲' 전국 50개소

중 경북에 9개소(18%)가 선정됐다. 사업비는 기금 기준 전체 242억 원 중 경북에 43억 원(17%)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다 선정되어 어려운 지방재정에 단비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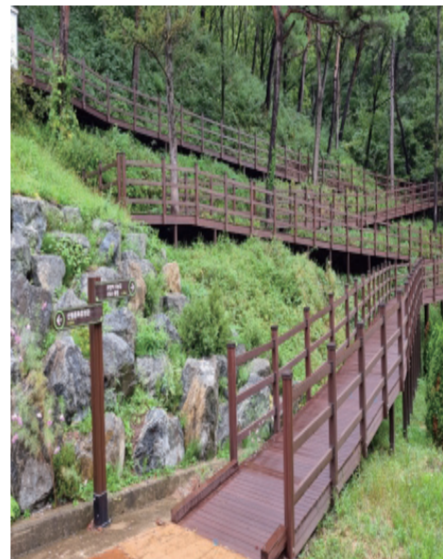
사업별로 살펴보면 복지시설, 의료기관, 특수학교 내 숲을 조성하는 '복지시설나눔숲'사업은 안동시 애명복지촌, 영주시 더사랑의 집, 영천시 은해사 포근한 집, 의성군 믿음의 집, 봉화군 하늘채 등 5개소가 선정됐으며, 사업비 1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복지기관 거주·이용자들에게 녹색 쉼터를 제공해 정신적·육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보행 약자의 안전한 산림 체험활동을 위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구미

시 금오정 무장애나눔길, 영주시 구수산 무장애나눔길, 영덕군 바데산 무장애나눔길 등 3개소가 선정됐으며, 사업비는 39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도시숲 내 보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무장애도시숲' 조성사업은 포항시 우현도시숲이 선정되어 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조현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산림복지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보행 약자에게 생활복지 공간과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 사업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의 공모에도 필요한 곳을 발굴해 꾸준히 확대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보성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성벌교 갯벌

# 제19회 벌교꼬막축제

2023. 10. 27(금)~29(일) 벌교읍 천변일원

꼬막 맛 좀 볼래?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수원천 일대 방문... 보행 안전 및 시설 점검

## 수원시, 권선구, 세류2, 3동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과 수원천 일대 점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의원은 23일 수원시 수질하천과 지역하천팀, 권선구 안전건설과 하수관리팀, 세류 2, 3동 관계 공무원, 박상국 세류2동 자치위원장, 지역주민 다수와 함께 수원천 일대를 방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갑작스런 호우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원천 하천출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고, 수원천변 차단시설 52개소 설치 예정지를 사전 방문하여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운동기구, 편의시설 등을 둘러보고 이용해보며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들도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천의 징검다리, 돌계단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겨울이 오기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원천이 될 수 있도록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천은 수원시의 중심부인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를 거쳐 황구지천으로 흘러드는 대표적 도시형하천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한 하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학생에게는 통학길, 직장인에게는 출·퇴근길,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시장가는 길,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책길 등으로 이용되며 저마다의 다양한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다.



김범삼/기자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지적...법 사각지대 해소위한 '자립수당' 필요성 강조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33.4%)'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심지어 법의 사각지대에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수당'도 없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경기도 여성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9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16명이다.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친족의 성폭력으로부터 분리 조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는 더욱 가혹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경기도의 21~23년 보호종료아동은 805명이다. 이들은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참고) 또래의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사회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 에겐 이 금액도 여전히 부족하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보건복지부의 소관 법률에 속하고,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속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다.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겐 돌아갈 '집'과 '보호자'는 더 이상 없다. 하지만,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종료아동과 같은 수준의 퇴소자립지원금(여가부 500만원, 경기도

1,000만원)이 지원되지만 '자립수당'은 없다.

작년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보호종료아동'의 정의와 '친족성폭력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법률가로서 비슷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세울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에 대한 '자립수당' 예산을 세울 시, 약 3.8억 원이 예상된다"며 "이는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104억원)의 0.00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집을 나오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묻거나, 성인이 되어야 집을 나와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특별보호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천억원)의 0.001%.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범삼/기자



#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대상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승차대기벨' 선정

## 2023년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주제로 대상작 등 입상작 20점 선정 본선 진출작 10점 작품에 대해 전문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 20명이 함께 평가

경기도가 공공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3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대상작에 경희대학교 하은진 학생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승차대기벨' 작품을 선정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주제는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이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9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20점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점을 대상으로 외부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본선 진출자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8월 25일 진행된 본선 심사에서 컨설팅을 통해 완성도가 향상된 10점 작품에 대해 전문심사위원과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20명의 국민평가단이 작품의 완성도,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 입상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대상(상금 400만 원)은 경희대학

교 하은진 학생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승차대기벨'이 차지했으며 금상 2점(각 300만 원)은 홍익대학교산업미술대학원 임성욱 씨의 '통합보행시스템', 경희대학교대학원 김진표, 박연희, 고금란 씨의 '디지로그 택시 호출기'가 선정됐다.

대상작은 시각장애인의 버스 승차 이용 시 기존 시스템 사용이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는 데서 문제를 찾아 점자와 양각으로 번호가 새겨진 버튼을 이용한 키오스크를 통해 직관적인 디자인과 음성 안내로 시각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용자 중심의 버스 승차 시스템을 디자인해 새로운 방향의 운송수단 시설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희영 경기도 공공디자인팀장은 "경기도는 매년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삼아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사회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7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전체 입상작 20점에 대한 전자자료집은 11월부터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을 통하여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김범삼/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선정에 자신감 필요 강조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6회 고양시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청 선정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실행 방안

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1부에서 안중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의 발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전략"을 시작으로 이원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장성 KOTRA Invest Korea 투자전략팀 연구위원 등이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필요성과 추진 전략, 기업 유치 전략

등을 발표했다.

황성태 경기경제자유구역 전(前)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2부 종합토론에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송규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남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김묵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성열 문화일보 부장, 김수진 (주)로켓헬스케어 부사장 등 실무 관계자와 정치행정전문가, 학계, 기업인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위원장은 "사람들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답한다."라고 서문을 열면서 "고양시는 이미 준비된 곳이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경기 북부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고양시 스스로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22년 하반기) 및 실무자 대책 회의('23년 10월) 등 지속적으로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범삼/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경기도 중부권 신도시 유치를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김철현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0월 23일 '경기도 중부권 신도시 유치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안양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중부권 발전을 모색하고 안양시 구도심 신도시 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전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은 "신도시 개발을 위해 인구 분산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과 자족 복합도시 계획 수립, 청년·신혼부부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안양시의 스마트 자족도시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인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도시 계획은 주거·교통 인프라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 주택공급량을 늘리고, 수요 입지를 고려해 유형에 맞게 공급할 것"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PF 고금리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군사 보호구역 지정 등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공공개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일훈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는 "현재의 국내외 상황, 인구 동향, 경제 상황,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해정 경기도시주택공사 공공복지처사업처 처장은 "거주자들의 환경을 우선시하여 수요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통학체계, 일자리·주거·여가 등 생활 속 모 든 것이 담길 올인빌 라이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와 차별화된 관점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접근해야 하고 안양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청

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철현 의원은 "신도시 개발 위주가 아닌, 현재 침체되어 가고 있는 평촌 신도시 등 재정비도시를 발굴하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들과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열띤 토론과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미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최은익 안양만안당협위원장,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태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김범삼/기자







# 보성군, 숨어있는 향토문화유산 찾아낸다!

### 11월 3일까지 신청 접수, 문화지킴이로 나서

보성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보성군에 숨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지정하고자 개인, 단체에게 지정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 한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물, 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이다.

보성군은 2017년 지정된 12점 이후 현재까지 추가 등재가 없었지만 6년 만에 다시 향토문화유산의 명실을 방지하고자 나섰다.

향토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소유자나 단체는 보성군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추후 전문가 조사에 응하면 된다.

문화유산은 1차 전문가의 현장 방문,

소유자 면담, 자료 조사 후 2차 보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보성군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매년 소유자와 함께 정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를 신청한 김 모 씨는 “많은 유산이 보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향후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문화유산이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나아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가 인정받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 향토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에 중 매년 한 건씩 선정해 도 지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가치를 향상 시키겠다.”라고 전했다.

최원영/기자



# 구례군, '줄 타는 아이와 아프리카 도마뱀' 공연 개최

전남 구례군은 11월 1일 저녁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줄 타는 아이와 아프리카 도마뱀'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의 2023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하나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창작연희극과 놀이 중심의 공연 활동을 하는 있는 공연 단체인 '광대생각'이 전통연희 중 '줄타기' 장르에 집중하여 이번 연희극을 창작했다. 국악 음향에 맞춰 기쁨

과 슬픔이 수시로 오가는 인생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광대생각 관계자는 “풀리고 꼬이고 때론 매듭이 되기도 하는 줄의 모습은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을 닮았다”며, “줄타기, 상모놀이 등을 사용한 연희, 현악기들을 활용한 창작곡 등으로 줄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지역 주민들이 폭넓은 문화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 말했다.

김성현/기자



# 목포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성황리 개최

###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및 홍보의 장 마련

목포시가 지난 21일, “2023 목포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 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목포시지부 주관으로 평화광장 일원에서 '사회적경제 목포와 놀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목포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가 함께했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행사에 참여해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마련됐다.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체험과 물품 판매, 홍보를 위한 부스 운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부대행사로 민·관협력사업인 공간마켓(프리마켓) 운영, 팍페라, 태권도시범 등 각종 문화 공연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마술공연, 버블공연, 에어바운스 등 놀이체험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인과 목포시 지역경제와 전 직원이 함께 평화광장 주변에서 플로깅(뛰거나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 활동)에 참여해 지구사랑 환경정화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경제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현 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전하며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전북도, 베트남 관광시장 공략 위한 '전북 관광마케팅' 총력

### 도, 베트남 주요 여행사 대표단 초청 전북 관광자원 홍보 및 팸투어 진행



전북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현지 10개 여행사의 임원진 10명을 초청해 동남아 주요 관광시장인 베트남 관광객을 전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펼쳤다.

베트남 여행사 대표단은 △무주 머루와인동굴 △무주 태권도원 △임실 치즈마을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치즈 만들기 체험 △한복체험 △전주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통해 베트남 관광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북 팸투어를 통해 베트남 여행사들은 체험형 전북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내년 초에는 베트남 여행객들이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2월 베트남 하

노이와 호치민에서 베트남 정부 및 여행업계, 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전라북도 관광설명회'에 이은 후속 사업의 성과이다.

특히 베트남은 동남아 주요 방문시장으로, 작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관광객은 185,061명으로 전체 방문한 외래관광객 중 5위를 차지했다.

전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동남아 관광시장을 대상으로 전북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각 국가별 관광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제 관광시장 재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전북 유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전남도, 완도와 수목원 가을 풍경 감상하세요

### 완도수목원, 11월 30일까지 최선주 작가 초대 개인전

전라남도완도수목원은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남도의 정취, 사유의 시간'을 주제로 11월 30일까지 지역 향토 작가 최선주 초대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완도와 수목원의 가을 풍경을 서정적 분위기로 담은 9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작품은 가로 10m 규모의 신작 '즐거운 인생, 행복한 기분', 완도 바다와 양식장의 모습을 작가만의 정겨운 시각 이미지로 풀어낸 '내가 쉬는 날' 등이 있다.

완도 출신인 최선주 작가는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광주미술협회, 현대미술가협회, 광주·완도 일요화가회 회원으로서 초대 및 개인전 10회와 40여 회의 아트페어, 단체전에 참여했다.

광주를 비롯해 목포, 강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완도의 모습을 알리는 고향 사랑 작가로 유희와 함께 수채, 공예, 먹, 콜라주 등 다채로운 기법과 재료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완도수목원에서는 오는 29일까지 그린쇼 페스티벌도 진행된다. 숲생태공연, 천아트 가든 드로잉전 등을 개최해 완도 군민과 지역을 찾는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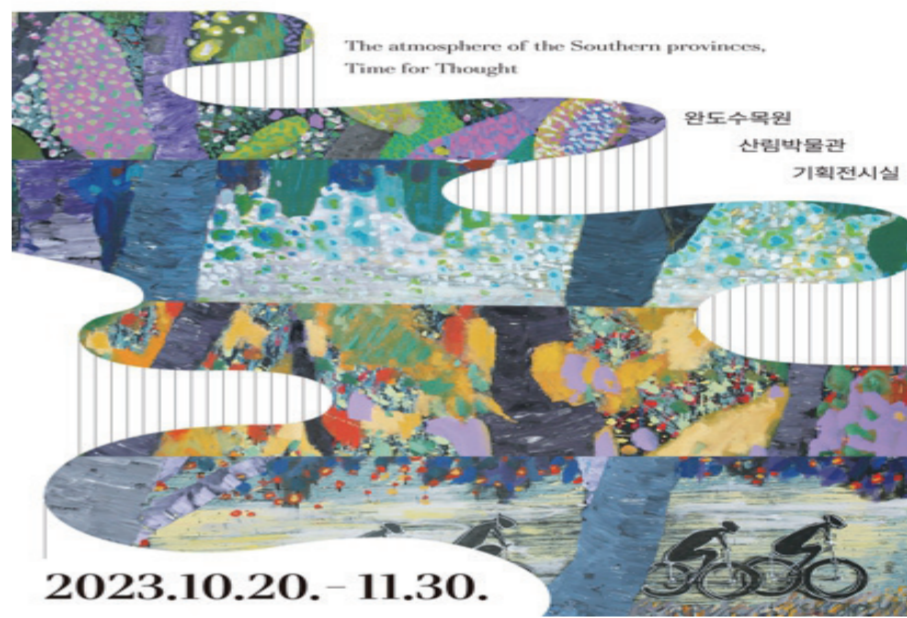
진호춘 완도수목원장은 “가을 행사에 발맞춰 개최되는 지역 작가 초대전을 통해 수목원 내방객이 잠시나마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남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남도의 정취, 사유의 시간

최선주 개인전 Sun Ju, Choi



# 진도군, 제27회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성료

### 대상부터 동상까지, 37마리 선정...총 상금 3,600만원 수여



진도군에서 제27회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는 천연기념물인 진도개의 보호, 육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국경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있는 진도개 반려인의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진도군이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전국 247두의 우수한 진도개가 출전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진도군수상인 대상에는 관내 성견 ▲강희원 출진견 '옥주강' ▲김영환 출진견 '백강'이, 관외 성견 ▲이용호 출진견 '금복이' ▲심삼용 출진견 '만호'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고 각각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최우수상인 진도군의회 의장상에는 관내 성견 ▲오순채 출진견 '해리' ▲

김신덕 출진견 '진돌'이, 관외 성견 ▲강석수 출진견 '현광' ▲유승현 출진견 '무쇠'가 선정됐다.

이번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는 식전공연과 함께 Dog 스포츠와 다양한 부대행사로 행사장을 찾은 전국 진도개 반려인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를 통해 진도개의 품격과 우수성이 널리 알려질 것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진도개가 전세계 명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진도개의 복지와 보호·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개의 체계적인 혈통관리와 진도개 메디컬센터에 진도개 전문 수의사 채용 등으로 진도개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 강진군, 노후기종 대체 및 신규 임대농기계 구매 수요 조사 실시

###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업인상담소에서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강진군은 노후 기종 대체 및 신규 임대 농기계 구매를 위해 오는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관내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업인상담소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설문지에 우린 군에 필요한 임대농기계를 기재하면 된다.

결과는 연말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위원회 심의 안건에 상정되며,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대체 및 신규 구매할

임대농기계를 선정하게 된다.

군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노후 기종 대체 및 신규 임대농기계 구매를 통해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단가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내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귀리 파종기 2대, 논공 파종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배치를 완료했다.

군은 군동본소, 칠량분점, 도암분점,

작전분점 총 4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농업용 굴착기와 콩선별기 등 60종 549대를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최영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기종이 있을 경우, 이번 수요조사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노후 농기계 대체 및 신규 임대농기계 구매를 통해 농가의 농기계 사용 안정성을 높이고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에 관한 문의는 농기계임

대사업소 군동본소, 칠량분점, 도암분점, 작전분점으로 하면 된다.

추운호/기자







영주시,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초청 '10월 영주인성아카데미' 운영

18~39세 이하 비재직자 대상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교육과정 개설

영주시는 26일 오후 3시, 영주시민회관에서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가족의 적절한 삶이 역량이다'라는 주제로 10월 영주인성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인지심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김경일 교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심리학과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또한 '어쩌다 어른', '세바시', '알쓸법잡2'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지식을 명쾌하면서 재미있게 전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경일 교수는 이번 아카데미에서 소통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행복하게 삶을 사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가족의 적절한 삶이 사회의 역량이 되는 이유 등에 대한 유익한 강연을 들려줄 예정이다.

시는 10월 영주인성아카데미가 시민들이 적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지혜

를 얻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11월 24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봉 교수를 초청해 '2023 초거대 AI가 나타났다. chatGPT가 바꾸는 디지털 문명시대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11월 영주인성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영주인성아카데미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가족의 적절한 삶이 역량이다

정금자/기자

경북도, 농업시설원예분야 중앙평가 1위 차지

경북도, 전국 16개 시도 중 농업시설원예분야 최고 인정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올해 처음 도입하여 평가한 농업시설원예분야 중앙평가에서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시설원예분야로 처음 실시하는 중앙단위 평가로, 전국 16개 광역 시도와 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8개월에 걸쳐 국비 사업의 예산집행률, 사업수행도, 지원 체계구축, 사업확산 노력, 평가준비 성실성 등 15개 평가 항목을 종합하여 중간평가, 시도평가, 중앙평가를 거쳤다.

이번 평가 결과 경북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중앙평가에 앞서 도 자체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완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시도에 대해 2024년 국비 배정 시 수요조사 결과의 50% 이상 순위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1등과 2등을 차지한 시도에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올해 농업시설원예분야 국비사업으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 40억 원,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시설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40억 원, 자동화 온실 등 시설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최적 생육환경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8억 원, 신재생에너지(지열, 공기열 등) 이용 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지원사업에 12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을 투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농업 시설 면적은 9,044ha로 경상남도에 이어 2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어 내년 농업시설 국비 예산 확대에 대해 시설농가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농업시설원예분야 중앙평가 1위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

로 우리도 시설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통해 모든 시설 농업인이 부자 되는 농업대전환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맞춤형 가정양육 지원사업 운영

의성군은 행복한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부권역 아이들행복꿈터(보건소)와 서부권역 출산통합지원센터(안계면)에서 가정양육 프로그램과 베이비카페를 통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저출산 극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가정양육지원 프로그램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오감놀이, 유아체육, 미술나라, 요리교실 등 7개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임신부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역량강화교육, 꽃꽂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들행복꿈터와 출산통합지원센터는 베이비카페 및 부모쉼터, 장난감·육아용품 대여소로 구성되어, 베이비카페는 농촌지역에서 드문 실내놀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아이들의 발달을 이끎이 잘고 있다.

이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장난감·육

아용품 대여소는 모든 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어, 매년 지역주민과 영유아 가정의 관심도 증가와 함께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대여 가능 개수 확대 및 선호하는 신규 장난감·육아용품을 구입하는 등 부모 수요와 트렌드에 호응하는 맞춤형 운영으로 96%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1.457명으로 경북 2위, 전국 4위를 기록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아이들행복꿈터와 출산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임신·출산·양육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우리 지역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영덕군, 지역특화식품 활성화 교육생 30일까지 모집

영덕군은 지역특화식품의 활성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지역특화식품 활성화 교육'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6차 농업미래관 실습실에서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영덕군 특산물인 시금치와 표고를 활용해 지역특화식품의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은 영덕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지도육성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대상은 영덕군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서, 신청서는 영덕군청 홈페이지 또는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황대식 농업기술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덕의 농산물을 이용한 경쟁력 있는 특화 식품이 개발되고 전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울진군, '경상북도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울진군은 지난 22일 울진 전문문화교육회관에서 20여 명의 학생과 20여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경상북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2021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결혼과 출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교육을 기획했다. 행사는 사단법인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경북본부 및 울진지부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은 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출범한 순수 시민운동단체로 이날 행사에 기념품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강의는 인구교육 전문가인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보드게임을 통한 독서교육', '내가 바라는 우리 마을 지도 그리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강의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가족이 함께하는 책놀이 워크숍 진행을 통해 가족 유대감을 증대하는 시간을 가졌고, 보드게임을 통한 울진지역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울진군은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창업시설, 월번지구 행복타운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울진군의 목표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단기간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관이 심어질지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넷마블(주) 권영식 대표, 안동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넷마블(주) 권영식 대표가 지난 23일 안동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가 고향인 권영식 대표는 2011년부터 넷마블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지난 3일 '안동시 승격 60주년 기념 안동의 날' 행사에서 명예로운 안동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넷마블(주)은 다양한 장르의 게임 라인업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매출 상위권을 기록하는 글로벌 게임회사

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최근,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최한 '대한민국 SNS 대상 2023'에서 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권영식 대표는 "타지에서도 늘 마음속엔 안동을 두고 살아오다, 작은 마중물이 되고자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했다"라며 "고향 안동이 오롯한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신산업으로 꽃피워 더 큰 발전을 거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성공적인 기업 운

명으로 안동의 청년들에게 자긍심과 비전을 전해주고 있는 권영식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50만 안동인의 역량과 단결력으로 안동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내수면 어자원 회복을 위한 토종 민물고기 치어 방류

춘양면 소로1리 운곡천에 잉어 3만 마리, 동자개 4만 마리 방류



봉화군은 23일 낙동강 지류인 춘양면 소로1리 운곡천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춘양면사무소 공무원,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잉어 3만 마리와 동자개 4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한동해지역본부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내수면 어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2023년 토종 민물고기 치어 방류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번에 방류된 토종 민물고기는 의성군에 소재한 경상북도 토축어류산업화센터에서 지원받은 5cm 크기의 잉어와 4cm 크기의 동자개다.

잉어는 고단백 저지방으로 자양식품 또는 찜 요리로 활용성이 높고, 동자개는 맛이 좋아 매운탕감으로 인기가 높아 경제성이 확보된 어종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외래어종 확산에 따라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토종 수산자원 증식과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서는 지난 8월 28일 이곡 운곡천에 붕어와 잉어 3만 마리를, 소천면 현동천에 미꾸리 3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으며, 이달 25일에는 관내 10개 읍면 주요 하천에 다슬기 치어 천만 패를 방류해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군에서는 하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복원을 위해 잉어류와 동자개, 버들치 등 고부가 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포항시 이강덕 시장, 대한민국의 미래 바꿀 지역 현안 경북도에 지원 건의

2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만나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의 당위성 강조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2023년 경북도민의 날' 행사 직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포스텍 연구중심외대 설립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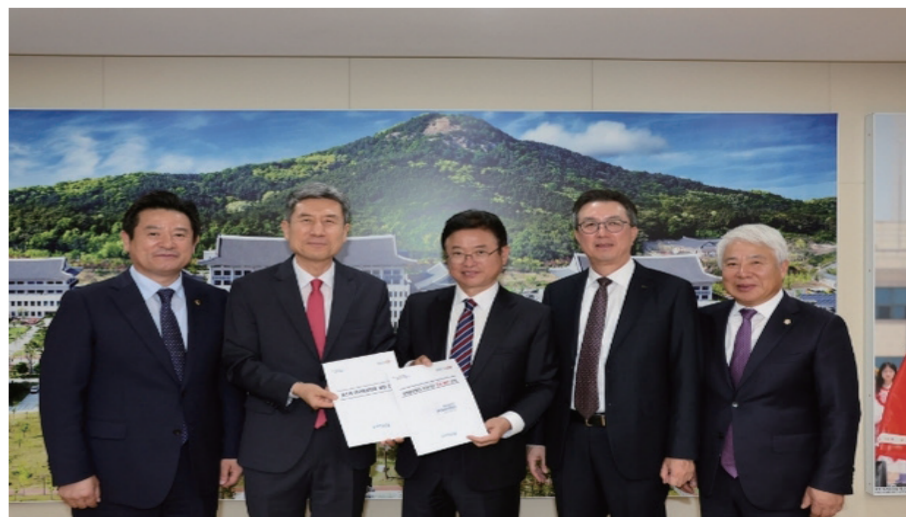
먼저 이 시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에대 입학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증원 규모와 배치에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도 의과대학자 양성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포스텍 연구중심의대'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경북도에 건의했다.

이는 의과대학을 양성하는 시스템 없이 다시 한번 코로나19 때와 같은 팬데믹을 맞이한다면 바이오헬스 산업과 국가 경제는 실질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행보다. 이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경북의 열악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만큼 의과대학자 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바이오산업과 함께 의료 혁신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 육성을 위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병원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진료하는 의사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우리나라 의학교육 체계에서 의과대학자 양성에 성공하려면 공학 학과 의학을 동시에 가르치는 포스텍의 접근법이 함께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지 평탄화 및 산업단지 계획 등을 위한 부지 평탄화 및 산업단지 계획 등에 대해서도 기업투자 로드맵에 맞춰 인프라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차전지, 수소 경제, 바이오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포항은 경북을 넘어 국가적으로 봐서도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도시"라면서, "경북도와 함께 전력을 다해 의과대학자를

비롯한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가장 포항다운 전략으로 지방 시대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경북농업기술원 다-Dream 봉사단, 애타는 농심에 구슬땀!

## 청송 부남면 과수농가에서 사과 수확 작업 및 농기계 수리 지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다-Dream 봉사단,은 가을 수확철을 맞아 바쁜 농가를 돕기 위해 10월 24일 청송군 부남면 양곡리 일원에서 봉사단 70여 명이 참석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원 다-Dream 봉사단은 올해부터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과 현장 애로 기술 컨설팅, 농업기계 수리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원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확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가와 몸이 불편한 농가 등 2곳을 대상으로 19,600㎡의 사과 수확뿐만 아니라 내년도 영농을 위해 농기계 30여 대에 대한 고장점검과 간단한 부품에 대한 무상수리도 실시했다. 양곡리 박찬목 이장은 “후지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빠른 수확이 필요한데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많이 힘들다”며, “오늘처럼 농업기술원 봉

사단이 찾아와 수확도 해 주시고, 농기계 무상수리까지 해주셔서 농가 입장에서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지역의 인력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가장 바쁜 영농철에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국내 최초 문경오미자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오미자 메카 문경!! 세계 최고 K-food 산업육성을 위한 도약 선포

국내 오미자 최고 생산량과 품질을 자랑하는 문경시는 문경오미자를 세계적 K-food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경오미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오는 10월 25일, 농암면 소재 STX리조트에서 30년 문경오미자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한다. 문경시는 국내 최고 오미자 메카로서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경오미자산업의 미래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의 학술적 토대 마련과 오미자의 우수성과 산업적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지속가능한 세계 최고 문경오미자 K-food 메카 조성’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식품과 관련한 전문가들로 구성했고, 미국 테네시 주립대의 메디푸드 전문가 제임스 윌리엄 데일리교수, 한국중소기업식품산업발전협회장 크리스토프 김,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박선민 교수,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김미자 농식품연구팀장이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주제 강연 후 발표 내용을 토대로 13명의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회들이 문경시 오미자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증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클링 오미자 향장 신제품의 런칭 행사를 비롯해 천년다래원의 오미자설 오미자시음체험행사 및 문경오미자 오행택견체조 공연행사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오미자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경시는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오미자생산자협회와 가금협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경오미자 국제학술심포지엄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10월 13일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심포지엄 준비에 돌입했다. 한편 신한국 문경시장은 “문경오미자는 문경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농특산물이지만 이제는 30년 문경오미자 산업역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K-food로 육성시켜야 하는 시점이 됐다. 이번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오미자의 우수한 식품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국내외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학술적 분석과 토론을 통해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적인 정책수립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문경오미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세계 속의 문경오미자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오미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이번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시민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과정개설

### 홈리빙, 향기 디자인, 제로웨이스트 등 과목마련



(재)부산디자인진흥원(DCB, Design Council Busan, 원장 강필현)은 다음 달 3일까지 지역 디자인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시민대학 생활디자인학과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디자인을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디자인 교육의 기회 제공을 통한 디자인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커리큘럼은 △홈리빙 디자이너 과정 △향기디자이너 과정 △제로웨이스트 디자이너 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홈리빙 디자이너 과정과 향기 디자이너 과정은 다음달 7일부터 개강해 23일까지 진행되며 제로웨이스트 디자이너 과정은 다음달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어진다. 모든 과목은 무료로 수강가능하며 수강생에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추가학습자를 대상으로는 ‘부산시민대학 명예시민학위’도 수여한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부산시민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과정은 실생활에 유용한 디자인 관련 강좌로 구성돼 디자인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 대구소방, 갑자기 끊어진 신고 전화... 끝까지 추적해 시민 생명 살렸다

### 위치 추적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움으로 의식소실 환자 위치 찾아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19상황원의 침착한 대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 덕에 의식을 잃은 시민의 소중한 생

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지난 21일(토) 오전 10:36경 119종합상황실로 “약을 잘못 먹었다”라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50대 남성)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순간, 더 이상의 대화가 없었고 전화가 끊어졌다. 신고를 받던 김선우 소방위는 2회에 걸쳐 신고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긴박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직감한 김 소방위는 이동전화 기지국의 위치로 구조대와 구급대를 보내 인근 지역을 수색하는 한편, 신고자의 전화번호로 위치 추적을 실시했다. 위치 추적 결과 달서구 도원동에 위치

한 아파트 인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특정해도 세대 모두를 확인하기가 곤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고자의 거주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평소 긴급 상황 발생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초동대처 안내를 하던 ‘상황근무 지침’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119종합상황실에서 파악해 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근무자와 통화를 했고,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거주자 현황을 확인했다. 다행히 신고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등과 호수를 파악한 119 구조대원들은 현관문을 개방하여 방입구에서 의식 없는 상태의 신고자를

발견했다.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평소 진료를 받던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약물 복용 후 일어난 알레르기성 쇼크 반응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하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우 소방위는 “이동전화 위치 추적만으로 환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는데, 신속하게 협조해 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공동주택 등에서 거주자의 기본 정보를 잘 관리하면 화재, 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월 주말체험-스포츠문화체험 실시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4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프로여자배구 경기를 관람하며 스포츠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주말체험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전문스포츠 영역인 프로여자배구 경기관람을 통해 스포츠맨십을 배우고, 스포츠 응원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또래간의 우애감과 연대감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참여자들 가운데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이 처음인 청소년이 대다수였으며, 직접 제작한 응원 피켓을 들고 응원하며 매우 흥미롭고 다채로운 경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미리 선생님께서 배구경기를 배우고 실제로 경기를 보니깐 이해가 잘 되고 배구에 속 빠졌다.”며 “선수들이 지고 있는데도 지지 않고 팀원들과 서로 잘 해내는 걸 보

고 나도 친구들과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방면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자신감 가득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농촌지도자 영양군연합회,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행사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10월 18일~19일 양일간 남양주시 종합운동장에서 영양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4명과 농촌지도자 회원 4명이 함께 했으며, 남양주시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고춧가루, 견고추, 사과를 판매하여 약 5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번 직거래 판촉행사 운영으로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받고 예약 판매처를 다수 확보함으로써 실질적 농가 소득 증대의 효과를 거두었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등 도·농 상생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 남

양주시 농촌지도자 회장은 “청정 고장 영양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며 살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됐으며, 앞으로 이러한 판촉행사를 통해 영양의 우수한 농산물을 자주 접할 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군은 농산물 판촉 홍보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 농가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청도군,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행사 개최

### 어린이, 도시소비자, 농업인 친환경농업 체험마을행사로 하나 되다

청도군은 24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성 및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운문면 오진리 일원에서 ‘친환경농업체험마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를 비롯한, 어린이, 도시소비자, 마을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친환경농업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친환경농업체험마을 행사는 어린이와 도시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지역 친환경농업

을 널리 홍보하고자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표고버섯 따기, 고구마 수확, 무 뽑기, 떡메치기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 체험활동과 지역의 우수한 친환경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운영됐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정 청도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알찬 친환경체험마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주민과 상인이 주체가 되는 마을 축제 열린다

제4회 연희동 마을축제 '낭만연희' 이달 28일 개최..마을공동체 화합 도모

서대문구는 이달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희동 자치회관과 궁뜰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제4회 연희동 마을 축제 '낭만연희'가 열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낭만'과 '연희동'이란 주제 아래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주축이 된 낭만연희추진위원회(위원장 김명호)가 주최한다.

이날 궁뜰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버룩 시장, 낭만채갈피만들기, 2024달력꾸미기, 캐리커처체험, 풍선아트, 비눗방울쇼 등의 콘텐트로 '나는 낭만 어린이' 구역이 운영된다.

연희동 자치회관 마당은 '낭만연희, 낭만무대' 구역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가을의 낭만을 선사한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 양미경·김영임의 공연을 시작으로 연희동 MTA태권도단의 시범 공연, 연희동 주민 유중권 씨의 색소폰 연주, 마술사

홀리의 마술쇼, 바리톤 이재준과 팝페라 가수 시아의 축하 공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주민들의 발표회가 잇따른다.

맛집들로 유명한 연희동의 특성을 살려 궁뜰어린이공원 인근에 '낭만 연희 마켓' 부스도 설치된다. 이곳에서 그리스식고치요리, 소시지플레이트, 떡갈비, 밀크티, 도넛, 사탕 등의 먹거리를 판매한다.

아울러 연희동 자치회관 인근에는 한국도자기,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백운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바자회와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낭만연희추진위원회 김명호 위원장은 "지역의 큰 행사인 만큼 당일 차량 통제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축제에 즐겁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깊어가는 가을, 많은 주민 분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는 낭만연희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금천구, '금천 순이의 집' 구로공단 옛 시간을 기억하는 사진전 개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구청 1층에서 개최

금천구는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금천 순이의 집) 개관 10주년을 맞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구청 1층에서 '금천 순이의 집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은 가산동에 위치한 산업사 전시관이 다. 금천 G밸리의 전신 구로공단의 1960~90년대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과 물품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쪽방을 재현해 전시

하고 있어 금천 순이의 집으로도 불린다.

이번 사진전에는 1960~80년대 구로공단의 20년간 생활상을 담은 사진을 전시한다. 구로수출산업단지 초기 모습(1960년대 초반), 무역박람회(1968), 구로동맹파업(1985) 등 주제별 사진 120여 점과 작업복, 신발 등 물품 6점을 전시해 산업발전의 주역인 구로공단 노동자의 공로를 기념하고, 금천구 산업역사를 관객

에게 보여 줄 예정이다.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에서는 보유한 전시물을 주민에게 소개하는 특별전을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진전이 관람객들에게는 금천구 G밸리 산업사 전반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 은평구, 탄소중립 시범거리 선포...“지속가능한 내일 만든다”

26일 은평문화예술회관서 선포식과 토크콘서트 개최



서울 은평구가 오는 26일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탄소중립 시범거리 선포식'을 개최한다.

앞서 구는 주민주도 저탄소 생활신천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초부터 은평로21길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탄소중립 시범거리 선포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1부 조성 보고와 유관기관장 공동선언, 2부 주민참여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토크콘서트에는 '우리마을 탄소중립'을 주제로 김미경 구청장, 전문가, 주민이 패널로 참여한다. 은평문화예술회관 입구와 중앙홀에서는 탄소중립 체험한마당 행사(환경, 에너지 체험부스)와 기후위기 사진전을 연다.

'탄소중립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은평문화예술회관~은평초등학교를 잇는 약 650m 구간의 은평로21길에서 추진됐다. '친환경 보행거리 조성'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주 내용이다.

'친환경 보행거리 조성'으로 노후환경 개선, 친환경에너지 시설물 설치, 흡수원 확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이 추진됐다.

보도 신설과 도로 디자인 포장 등 은평로21길의 노후 환경을 개선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으며, 태양광 보안등·도로 표지·로고젝터 등을 설치해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자투리땅에는 식물식재 등을 통해 녹지를 조성하고, 노후 담장은 안전 보강하고 탄소중립 벽화를 새겼다. 빗물을 저장해 활용하는 스마트 화분, 띠 녹지와 보행로 같이 화분도 설치해 흡수원을 늘리는 등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

특히 도로디자인 포장은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상징하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민 실천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은평

의 내일을 의미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으로는 주민실천단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 쓰레기 다이아트 프로젝트,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추진 중이다.

구는 올해 '은평형 2050 탄소중립 사업' 추진, 환경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참여 등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동네 골목길을 중심으로 시작한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 실천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지속가능한 은평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서초구,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서울 서초구가 대규모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통합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27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훈련 가상상황 유형을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연구소의 폭발테러로 인한 대형화재 대응'으로 가정하고 훈련을 실시한다.

올해 훈련은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R&D센터에서 시행하며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훈련을 시행하고자 자체적으

로 훈련의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신속한 주민 상황전파와 자체대응 ▲경찰, 소방, 의료 구 조장비 및 대응인력의 정확한 도착 ▲인근 학교의 대응 등 실질적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대응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의 유기적 소통을 통한 신속한 대처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SNS를 통해 훈련현장과 서초구 재난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대책

본부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상황 대처를 실현하고자 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신속한 재난 초기 대응을 위해 '재난초기대응 기본 매뉴얼'을 제작했다. 구는 수해 등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폭발테러에 의한 대형화재'와 같은 복합적인 재난상황에서도 구 매뉴얼이 적절히 대응되고 시행되는지 자체 테스트하고자 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임하면서 확고한 지휘체계,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 주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현장에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경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 강원특별자치도, 2023년도 봄철 산불예방·대응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산불발생시 도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 앞장서 지휘, 신속한 대응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청에서 평가한 2023년도 봄철 산불예방·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산림청에서 특·광역시, 도, 지방산림청, 산불지원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는 4개 분야 8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 정량평가(산불예방 및 홍보, 산불대응, 타 기관과 협력도)와 자율적으로 제출한 우수사례인 정성평가로 이루어졌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량평가 지표 중 1) 산불발생시 지휘권자의 직접 지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통합 지휘권자 현장지휘율과 2) 산불 발생시 상황별로 즉각 도민에게 알렸는지를 평가하는 산불전화상향 브리핑 실적에서 만 점을 받으며,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18개 시장군수가 산불 발생시 앞장서 직접 지휘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알린 대응력을 인정받게 됐다.

한편, 도에서는 영동·영서 동시다발

적인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존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로 확대개편, 22.10.22.부터 전국 최초로 산불 전문 전담기관인 산불방지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해안 6개 시군 589개소에 CCTV 70개, 화재감지기 519개를 구축해 화재감지 시 산불방지센터, 산불감시원에게 SMS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전파하는 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봄철이면 기후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산불의 위협에 있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맺은 뜻깊은 성과”라면서, “산불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원인 산림,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산불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 근절해야”

짚풀문화제 안전대책 등 세부 보장 주문, 온천산업박람회 홍보 등도

박경귀 아산시장은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촉제만 있으면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 바로 다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 시장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며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정치인의 현수막도 버젓이 붙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를 개정안이 시행되며 정당 현수막이 급증, 전국적으로 안전 위험과 정치권 혐오 등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위반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 중이다. 행안부는 인천시 조례에 대해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이 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

박 시장은 이 같은 흐름을 언급하며 시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제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규제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도 우리대로 추진해야

한다. 갑을 선거구 권역을 넘어선 현수막을 허락하지 말고, 부착 장소와 개수도 지정해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 20~22일 열린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에 대해 “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충사 달빛야행까지 포함하면 주말 동안 10만 명 가까이 아산을 다녀갔다”고 만족감을 표한 뒤 “다만 조금 세부적인 사안은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코농 페스티벌 벼 수확 체험 시기 조정 및 낫질 사전교육, 초가집 지붕 교체, 짚풀 놀이터 등 안전대책 강화, 아산 시그니처 한복 대여사업, 시장물 필수 등 체험 과정 반영, 짚풀공예 체험 품목 다양화, 전통 부엌 재현 고증보강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현충사 달빛야행 시간 앞당기기, 온천박람회 주차장 탄력적 운영, 결빙 대응 시설 준비 철저, 어린이집 연계 치매 개선 프로그램 추진, 온천 산업박람회 등 지역축제 TV 프로그램 등 언론 홍보 계획 점검, 행사 의전 간소화 매뉴얼 정비 등을 지시했다.

김원호/기자

## 충남도, 독일에 'K-문화의 진수' 전한다

도, 오는 31일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국악·K-팝 독일 공연

도는 오는 31일 독일 메세 프랑크푸르트 콩그레스센터 하모니홀에서 '2023 충남-크레센도(충남! 한국의 문화를 키우다)' 공연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문화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또 파독 근로자 등을 초청,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도 담았다.

공연은 외자유치 등을 위해 29일 독일-폴란드 방면에 나서는 김태홍 지사와 파독 근로자, 독일 기업 관계자를 비롯한 현지인 등이 관람할 예정이다.

공연의 막은 흥겨운 사물놀이와 전통 무용이 어우러진 서천군립무용단의 '연

회 판노리'로 열린다. 이어 홍성 광천에 위치한 K-POP고등학교 학생과 독일 현지 고등학생들이 함께 비티에스(BTS), 블랙핑크, 에스파 등 유명 아이돌 노래와 춤으로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K-POP고 학생 공연에 이어서는 천안 상명대 출신 케이-팝 댄스팀과 독일 현지 대학생이 댄스 공연을 펼친다.

또 걸그룹 체리블렛과 4인조 보이그룹인 티아이오티(TIOT)가 무대에 올라 케이-팝의 진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대미는 국악인 박애리 씨와 가수 겸 공연예술가인 팜핀준 부부가 장식한다.

도 관계자는 “한독 수교 140주년과 도의 투자설명회에 맞춰 마련한 이번 독일 공연은 국악, 케이-팝 등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남도가 독일에서 우리나라 전통 음악과 케이-팝(K-POP)이 어우러진 신명나는 무대를 펼친다.

## 택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 '선택등기'로 변경 발송

수출 확대 및 중국 상하이에 완도군 중국수출사무소 개소 협약

택시는 올해 1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낮 시간대 등기우편 수령률이 떨어지며 반송되는 우편물이 급증해 과태료 부과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등기 반송률은 9월 한 달 기준 5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방식인 일반등기는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반송 처리되는 반면,

택시 우편은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중일 경우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반등기와 일반우편의 발송 효과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관계자는 “우체국 선택등기 제도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력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 원주시, 제25회 반도체대전 참가 '반도체기업 유치' 나선다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반도체클러스터 확장 최적지원' 적극 홍보



SEDEX 2023 제25회 반도체대전

원주시가 오는 25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5회 반도체대전(SEDEX)에 참가, 반도체기업 유치를 나선다.

올해로 25회째를 맞고 있는 반도체 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문 전시회다. 시스템메모리 반도체·설비·센서 등 국내 반도체 분야 300개 기업이 참가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중사자 6천여 명이 참관한다.

원주시는 이번 행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테크노파크와 함께 '반도체기업 유치 홍보관'을 공동 운영하고,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의 최적지원'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착공에 들어간 부론일반산업단지 중 집종 홍보하고 전도유망한 반도체기업을 다수 유치해 부론산단의 내실을 크게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반도체대전 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주시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의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며, “원주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경북 세계유산 을 통해 지방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GYEONGBUK-DO

핵심과제	
<p><b>외연확장</b></p> <p>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 '23.9. 등재유력), 태실, 한지, 활문화 등 신규발굴</p>	<p><b>디지털 대전환 선도</b></p> <p>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천년 유교경전각 건립</p>
<p><b>맞춤형 관광자원화</b></p> <p>신라왕경 역사가로길, 하회권 킥로드, 서원·산사 명품순례길 조성</p>	<p><b>문화유산 생태계 혁신</b></p> <p>디지털 콘텐츠 산업클러스터 조성, 답러닝 기반 전통기록물 해독</p>

# 대구광역시, 핼러윈데이 인파사고 예방 특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 핼러윈데이 기간 중 다중인파 밀집 우려지역인 중구 동성로 클럽골목 일원 인파사고 예방 집중 안전관리 실시

대구광역시는 주최, 주관자 없는 다중집행 행사인 핼러윈 데이(10. 31.)를 앞두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에 대비해 인파사고 예방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대구광역시 빅데이터과가 핼러윈 데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2022.10.29. 18시~2022.10.30. 04시 동안에 대구 도심 주요 지점(동성로 클럽골목·舊대백약·CGV인근, 방천시장, 동대구역·신세계, 상인역자골목, 칠곡3지구 등)에 대한 인파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심야 시간대(00시, 02시)에 동성로 클럽골목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년 10.31.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대구광역시는 중구청, 대구경찰청, 중부경찰서, 대구소방안전본부, 중부소방서 등과 함께 동성로 클럽골목에 대한 인파사고 예방 특별 안전관리 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근무 기간은 10.27.부터 10.31.까지이며, 특히 10.27., 10.28., 10.31.에는 당일 18시부터 익일 03시까지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구경



청, 중부경찰서, 대구소방안전본부, 중부소방서 등 연인원 309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대구광역시 합동 근무와 별개로 각 구·군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근무는 행정부시장이 총괄하며, 총괄상황실(실장 : 재난안전실

장) 아래에 상황총괄반, 현장상황반, CCTV관제반, 질서유지반, 응급구조반, 의료대응반, 주정차 및 적치물 단속반 등을 운영해 인파 밀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이번 핼러윈 기간 동안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동성로 클럽골목의 밀집도를 실시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

장 사전점검, 현장 상황반 등을 운영해 인파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난 10.11. 동성로 클럽골목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경찰, 소방 등이 합동으로 이미 현장 안전점검을 한차례 실시했으며, 10.19.(목)에는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7층 재난대책본부에서 대구광역시와 구·군, 경찰, 소방 등 인파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및 상황전파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오는 10.26.에는 동성로 클럽골목에서 유관기관 현장 대책회의를 다시 개최해 미비한 사항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작년까지 열리던 남구 앞산 카페거리 핼러윈 행사가 올해는 취소되는 등 금년 핼러윈 데이 분위기는 작년 대비해 조금 차분해 보이지만, 대구광역시는 이에 방심하지 않고 안전한 핼러윈 데이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전남도,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11월3일까지 18개 시군 130여 기관 합동으로 진행

전남도는 25일 목포시, 고흥군 등 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3일까지 2023년 3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도내 18개 시군이 각각 주관하고 130여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산불 등 주로 가을-겨울철에 발생 위험이 높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 유형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목포시 등 12개 시군은 대형할인마트, 문화체육센터, 경기장 등 다중밀집시설에서의 대형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시설 이용 인원을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초기 자체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곡성 등 5개 군에서는 대규모 산불 발

생 상황을 가정하고 산림청, 소방서, 군부대 등 30여 기관과 함께 훈련한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추세인 만큼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산불 진화를 위한 협력 대응체계를 주로 점검한다.

무안군은 기상악화로 인한 무안공항에서의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공항시설 파괴, 인근 야산 화재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재난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사고수습본부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진행하는 통합연계훈련을 도입했다.

재난 초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 경찰, 시군, 재해(재난)의료지원팀(DMAT) 등 1차 대응기관의 협력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박종배/기자

국민과 함께 안전한국훈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비훈련

2023. 10. 23. (화) ~ 11. 3. (화)

# 경주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합동 지도·단속

###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포항해경과 함께 합동점검 실시

경주시는 지난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포항해양경찰서와 함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내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지역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홍보했다.

특히 최근 일본산 수입량이 증가한 활

참돔, 활가리비, 활우렁छ이 등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총 20종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시기인 만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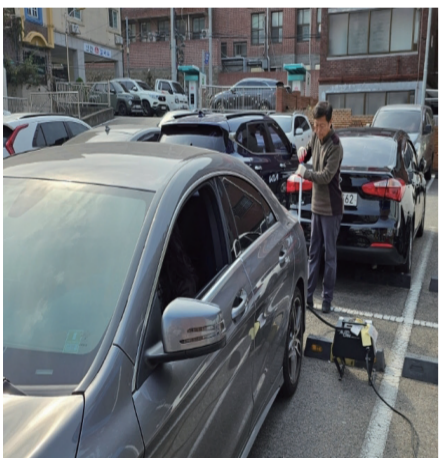
윤태용/기자



#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 인천 중구, 배출가스 점검 등 ‘차량 무료 점검 서비스’ 행사 성료



인천시 중구는 18일 경동공영주차장(경동 225-1)에서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행사를 개최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문희)과 기아자동차 중동지점의 협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동절기 차량 필수항목(엔진오일·냉각수·브레이크·타이어 공기압 등) 점검 ▲소모품(워셔액·와이퍼 등) 교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 제공했다.

배출가스 점검은 연료 종류에 따라 경유 차량은 매연을, 휘발유·LPG 차량은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

(HC) 농도를 측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사전예방적 점검인 만큼 이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2대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자율 정비 후 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했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배출가스 점검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 부천시,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및 불법카메라 점검 나서

부천시는 지난 20일 7호선 부천시청역에서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및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인천교통공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더욱 많은 시민에게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7호선 부천시청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민감시단은 불법촬영 대응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과 함께 호신용 호루라기를 지급해 시민들이 위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시민감시단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인천교통공사 관계자와 함께 부



천시청역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 등 2차범죄의 우려가 있어

더욱 위험하다. 시민감시단의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경북교육청, '이웃사랑 및 나눔문화 확산 노고'에 감사!

## 2023년 경북사랑의 열매 유공자 포상 감사패 및 표창 수여

경북교육청은 24일 경북도청 1층 다목적홀에서 이웃사랑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교육감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유공자 포상식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상식에는 적극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세종호 아진산업 대표 이사와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애린

복지재단이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또한 황남초의 조원형,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의 여지현 주무관은 이웃 돕기 성금 모금 등을 홍보해 모금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 돕기를 실천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웃사랑과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따뜻한 경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교육지원청, 지역업체와의 소통협의회 개최

민관 상생 및 청렴문화 확산의 장 마련  
이창희 교육장,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려주시는 만큼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혀

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예천지역 공사·물품·용역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2023년 민관 상생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업체와의 소통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소통협의회는 계약 관련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개선의견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과 소통 공감을 통한 청렴 문화확산을 위해 이뤄졌다.

지역업체의 계약 업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 교육장의 당부가 지역업체 관계

자들의 공감을 이끌었으며,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교환의 장이 되었다.

이창희 교육장은 "지역업체 관계자분들의 청렴한 경쟁이 지역경제와 예천교육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당부하면서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려주시는 만큼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 경북교육청, 실무중심 사안처리 연수로 현장 대응력 높여

## 교내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24일 9월 1일 자 신규 임용 교감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94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사안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현장 사례 중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사례 중심의 성희롱·성폭력 이해 △사안 보고 처리 협의 및 안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사안 처리 안내 등이다.

특히 성고충위원장이 관리자가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이해해 업무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김중현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관리자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예방과 사안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 피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덕교육지원청, 2023 도전! 체력인증한마당

## [함께하는 체력up! 안전up!] 개최

영덕교육지원청은 2023년 10월 21일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2023 도전! 체력인증 한마당 [함께하는 체력up! 안전up!]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200여명의 학생들과 학교장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힘껏 펼치고 다른 학생들과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면서 자신의 운동 역량을 발산했다. 그리고 이외에 메타버스 스포츠, 다문화 체험, 해양 안전

체험 등 다양한 부스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됐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저하된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윤인한 교육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이 체력향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부스 체험으로 유의미한 경험을 늘려 앞으로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부산교육청, 대학 연계 숙박형 인성 영어·수학캠프 위탁기관 공개모집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11월 7일까지 '숙박형 인성 영어·수학캠프' 민간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캠프는 원도심·서부산권 학생의 교

육력 제고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의 방학 중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키워준다.

이번 공개모집 신청 자격은 10월 18일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캠퍼스(본원)를 두고 평생교육원, 언어·외국어교육원 등 교육원과 기숙사를 운영 중인 대학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모집을 통해 5개 대학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한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은 2023학년도 겨울방학과 2024학년도 여름방학 중 각각 3주간 캠프를 운영하게 된다.

대학들은 ▲숙박형 인성 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지도 강사 교육 및 관리 ▲학력 향상 성과 관리 등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참여 희망 대학은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부산교육청은 접수 마감 후 '수학선정심의회'의 사업수행계획, 프로그램 운영 능력, 전문성 등 평가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5개 대학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위탁기관 선정 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캠프 참여자를 모집해 내년 1월 중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학생들은 수준별 영어·수학 교과 몰입형 교육, 대학에서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인성 함양 성장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경비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숙박형 인성 영어·수학캠프'는 공교육을 통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 전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번 공개모집에 운영 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부산지역 대학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제17회

# 청송사과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

2023. 11. 1.(수) ~ 11. 5.(일)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향연**



주최 / 주관  
후원

청송군 /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청송군의회,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청송교육지원청, 청송군관내농협, (사)청송사과협회, K-water 청송권지사, 한국수력원자력청송양수발전소, 청송문화원 등

### 국내 우량기업 8곳 대전에 등지 든다

#### 위성분야 국내 유일 전문기업 등 988억 원 투자협약 체결

대전시는 23일 오후 3시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우량기업 8개사와 988억 원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중설 투자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동 노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한 바임(주) 김근풍 대표, (주)비오에프엔씨 임용국 대표, 상원엔지니어링(주) 육정선 대표, (주)세이퍼존 권창훈 대표, (주)세트렉아이 김이를 대표, (주)에이치투 한신 대표, (주)에프씨피 이상철 대표, 유선식(주) 유선국 대표가 참석했다.

바임(주)은 인쇄 조직 관련 안정성이 검증된 필러제 품 상품화 및 완제품 제조 기업으로 노화 외도 개선 안티 에이징 사업 확대를 위해 유성지역 개별입지에 신설한다.

(주)비오에프엔씨는 친환경 원스톱 자동차 라인 식기 세척 살균 시스템 제조 및 운영 기업으로 위생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원, 대기업 등 단체 급식 기관들에 식기 세척 살균시스템 서비스 제공 확장하기 위해 서구평촌산단에 신설 투자를 결정했다.

상원엔지니어링(주)은 수·배전반 전문업체로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자동소화시스템과 지능형 화재 조기감지시스템을 제조하여 화재 관련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유성 둔곡산단으로 이전 투자한다.

(주)세이퍼존은 글로벌 탑 수준의 네트워크와 IT장치 통합 보안 기업으로 차세대 SSD, 보안 USB, 보안 NAS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유성 둔곡산단으로 신설 투자한다.

(주)세트렉아이는 한국 우주 사업 개

척 및 검증된 위성체계를 개발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업으로 지구 관측용 초고해상도 위성 제조, 위성 본체, 탑재체, 지상체 등 핵심기술을 보유한 초일류 기업이다. 유성 둔곡산단으로 신설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주)에이치투는 바나듐을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바나듐 흐름전지 에너지 저장장치(VFS ESS)인 컨테이너와 캐비닛 형태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서구 평촌산단으로 신설 투자한다.

(주)에프씨피는 정밀화학 플랜트 선도 기업으로 특수목적용 기계 산업용 탱크의 설계,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한다.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공장 및 이차전지 전구체 반응 시스템 등을 주로 제조하며 유성 둔곡산단으로 신설 투자한다.

유선식(주)은 전문 가공류 가공 및 저장 처리, 유통전문회사로 하림, 교촌,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등 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며 유성지역 유성지역 개별입지에 신설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대전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에 감사하다”라며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도 굳건히 자리 잡고 발전 성장하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대전시는 8개 기업의 신설 및 이전 투자 협약 체결로 347억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와 협약을 체결한 8개 기업 대표들은 “기업하기 참 좋은 도시 대전에서 이익 극대화를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와 많은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 영세 소상공인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 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에서 애로사항 청취



충청북도는 23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도내 경영위기 소상공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 및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2년 연속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사업 충북 권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1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하며 그간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사업은 도내 경영위기 소상공인 131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경영개선교육, 사업화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경영개선교육에 참여하여 백종원 대표 특강, 차별화전략, 마케팅 등 교육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했다.

사업화 자금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특히 인종평가, 매장모델링, 온라인 마케팅 판로지원 등 사업운영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아 경쟁력을 높였다.

이 사업으로 재기에 성공한 4개 기

업은 우수사례·성과발표를 했고, 이어 김영환 도지사와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역할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확대,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영환 지사는 “일선에 계신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앞으로 자주 마련하겠다”라며 “여러분들이 야말로 진정한 서민경제의 근간인만큼, 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관리 강화로 주민권익 보호

### '23년 7~9월 해산·청산하지 않는 정비사업 조합 일제조사 실시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9월 두 달간 2023년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백만 원으로, 최고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당되어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해산 완료된 조합은 12개소, 청산

종결된 조합은 25개로, 이는 복잡하고 난해한 조합 운영의 특성과 각종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해산 또는 청산의 지연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 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지연 조합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는 조합은 총 167개소로,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으로 파악된다.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그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

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9~10월에 걸쳐 위 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산·청산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23년 12월부터 실시할 하반기 일제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 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예천군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 예천장터

예천 사과

물 좋기로 소문난

## 鳳凰, 非醴泉不飲(莊子)

봉황은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장자)

# 醴泉

단술에 샘천

예천 참기름

예천 쌀

예천 한우

NAVER 예천장터

검색창에서 예천장터를 검색하세요!

주문 및 상담안내 : 054)650-6280

<http://www.ycjang.kr>

# 영양 들어다보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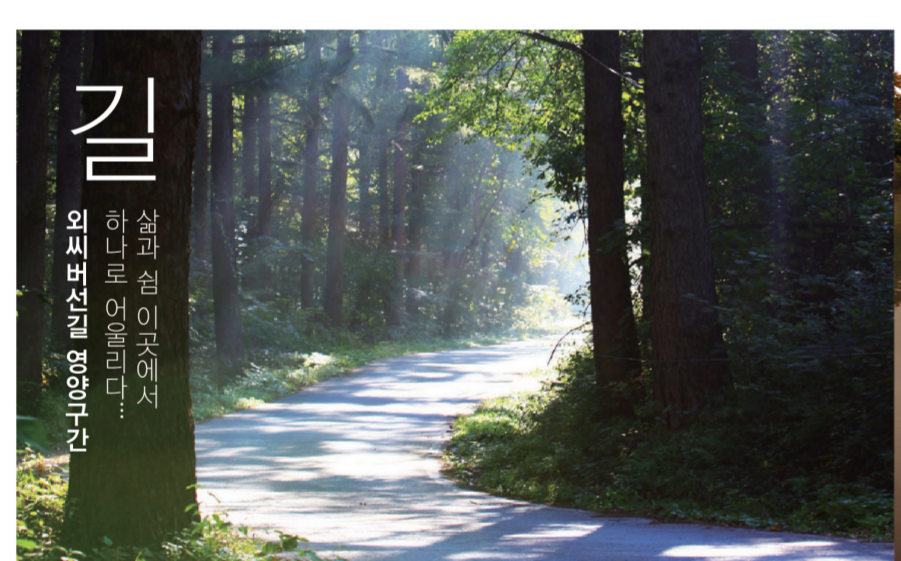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 Z O O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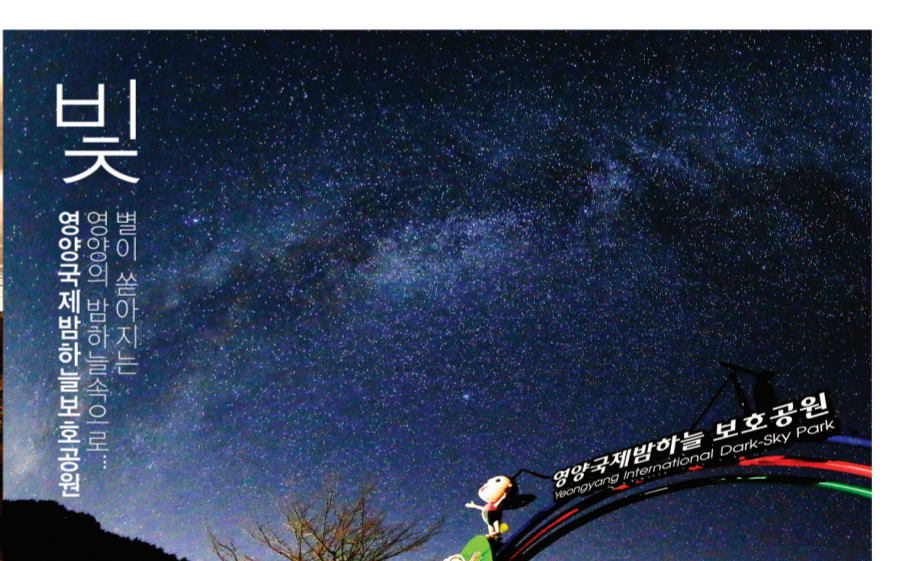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숲과 숲 이곳에서  
아름답게 오세요...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물**  
영양의 아름다움  
이제 다 보셨나요?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보러 오세요...  
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얼**  
시냇물의 대가  
영양서석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